

상황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에 대한 판단*

Children's Ideas about Self-Regulation by Situational Characteristics

조성민**
Cho, Sung Min

이순형***
Yi, Soon H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s ideas about self-regulation in such situational variables as the presence of explicit rules and the domains of social rules. The subjects were 6-, 9-, and 12-year-old children (344). To assess children's ideas about self-regulation, a procedure was devised in which children were presented with stories portraying a protagonist in a conflict between an implicit or an explicit rule and a personal desire. The children were asked to make a choice for the protagonist and to give reasons for their choice.

Major findings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self-regulation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explicit rules.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self-regulation depending on the domains of social rules. In situations that involved no explicit rules for behavio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domains. In situations that involved explicit rules for behaviors, for 6- and 9-year-old childre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domains. (3) Children's use of justifications for their choice of action varied as a fun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ules.

I. 서론

아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성인이나 사회가 요구하고 제한하는 기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성장한다. 사회적 규칙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사회적 규칙에 따르

는 능력의 발달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자기 규제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필요와 사회 또는 부모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 외부의 감시 없이도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려는 능력, 또는 바람직한 목표를 위해

* 본논문은 1998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조교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지연시키는 능력 (Shaffer, 1993)을 뜻한다.

아동의 자기 규제력 발달은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들은 자기 규제 능력이 보상과 처벌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고 설명하고,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동의 기준이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주로 자기 규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의 특성 또는 양육방식이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다 (Kuczynski et al., 1987). 이에 반해 Piaget와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은 주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초점을 맞춰 옳고 그름에 대한 인지적 판단능력의 발달양상을 설명한다. 이들은 아동의 도덕적 자기 규제의 결정인자로서 인지적 판단능력을 다루고, 인지발달수준에 따라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즉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성인과 사회의 제재인 타율성 단계에서 상호존중에 기초한 공정성과 호혜성에 근거하는 자율성 단계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모든 규칙을 동일하게 대한다는 Piaget(1969)의 주장에 대해, Turiel(1983)은 사회적 규칙은 질적으로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본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상이한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세계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는 도덕 영역과 사회체계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하는 규범으로서의 인습 영역과 개인의 선택 및 권리가 허용되는 개인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아동의 규칙 및 권위에 대한 개념, 영역에 따른 상호작용의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발달의 영역구분모형(Turiel, 1983)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이 행동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을 탐색하고, 이 행동이 사회의 기준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지각해야 한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에 사회의 규칙에 대한 아동의 이해가 개입된다. 사회적 규칙은 질적으로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 상이한 영역으로 개념화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아동의 자기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의 순응 행동이 과제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Silverman & Ragusa, 1990) 결과는 아동이 사회나 부모의 규칙에 대해 순응할 때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이 사회적 규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규제의 정도와 그 동기를 다르게 개념화할 것으로 가정되므로, 자기 규제 발달에서 아동이 갖는 능동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규칙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 여부와 그 이유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규칙을 부여하고 규칙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주된 양육자는 어머니이다. 아동은 타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언어적 지시나 통제를 내면화하여 자기 규제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타인 규제로부터 자기 규제의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는 Vygotsky의 주장은 아동의 자기 규제에 규칙의 특성과 함께 규칙을 부여하는 어머니라는 권위 대상에 대한 개념도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암묵적인 사회적 규칙과 어머니가 정한 규칙에 대한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밝히기 위해 이 연구는 6세 유아, 9세 및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욕구와 사회적 규칙 또는 어머니가 정한 규칙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 규제 여부와 그 이유 규칙 명시와 규칙의 특성이라는 상황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아동의 자기규제 비율은 규칙 명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아동의 자기규제 비율은 규칙 영

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규칙영역별 아동의 자기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유형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유치원의 만 6세 유아와 초등학교의 3학년과 6학년 남녀 아동 34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아들은 서초구의 K유치원과 관악구의 S유치원에서, 아동들은 송파구의 S초등학교, W초등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3학년과 6학년 2개반씩을 유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 6세, 9세, 12세로 유아가 51명(남 25, 여 26), 3학년 아동이 149명(남 77, 여 72), 6학년 아동이 144명(남 75, 여 69)이었다.

2. 연구 도구

1) 규칙 영역과 각 영역에 속하는 문제 행동

아동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 이유를 측정하기 위하여, Nunner-Winkler와 Sodian(1993), Nucci(1981), Smetana(1989), 그리고 Smetana와 Asquith(1994)의 연구를 참고로 갈등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질문을 구성하였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업은 문화적 배경과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문제 행동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업과 관련된 행동을 주로 청소년기에만 두드러지는 문제로 다루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기부

터 부모가 강조하는 문제이므로 학업관련 문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규칙 영역은 도덕 영역, 인습 영역, 안전관련 영역, 놀이관련 영역, 학업관련 영역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아동학 전공자 4인과 함께 각 영역에 속하는 3-4가지 문제 행동을 선정하고 각 문제의 심각성 수준을 비슷하게 조정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속하는 문제 행동이 대상 연령 아동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1-6학년의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의 유형과 이야기를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이 완성되었다.

규칙 영역은 도덕 영역, 인습 영역, 안전관련 영역, 놀이관련 영역, 학업관련 영역 등 5가지로 나누고, 각 규칙 영역에 속하는 문제 행동을 3가지씩 선정하였다. 다섯 가지 규칙 영역과 각 영역에 선정된 문제 행동은 <표 1>과 같다.

각 문제 행동은 두 가지 상황으로 달리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개인적 욕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업과 갈등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욕구가 어머니가 정한 규칙과 갈등하는 상황이다. 각 이야기에서 아동에게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규칙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성별 효과를 통제하고, 아동이 이야기속 주인공

공의 입장에 자신의 입장을 투사하여 판단함으로써 규범적인 응답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동 자신이 아니라 아동과 연령 및 성별이 동일한 아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 유아가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행동을 나타내는

21cm×29cm의 그림을 보조자료로 준비하였다. 설정된 이야기들은 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아동학 전공자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사받았으며, 예비조사과정에서 아동들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질문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선정된 이야기들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표 1〉 규칙 영역과 각 영역에 속하는 문제 행동

규칙 영역	정 의	행 동
도덕 규칙	타인의 복지, 신뢰, 또는 공정함과 관련된 문제	(1) 친구 때리기 (2) 친구 장난감 몰래 가져오기 (3) 친구에게 거짓말하기
인습 규칙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행동 규칙과 관련된 문제	(1) 차례 안 지키기 (2) 어른께 반말하기 (3) 장난감 마구 어지르고 안 치우기
안전관련 규칙	자신의 안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1) 무단횡단하기 (2) 이 안 닦기 (3) 밥 안 먹고 단 것만 먹기
안전관련 규칙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문제	(1) 방과후 집에서 오락만 하기 (2) 저녁 늦게까지 TV 보기 (3) 매일 만화책 보기
학업관련 규칙	아동의 성취 과업과 관련된 문제	(1) 책 안 읽기 (2) 일기 안 쓰기 (3) 숙제 안 하기

2)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Davidson, Turiel과 Black (1983), Nucci(1981), Smetana와 Asquith (1994)가 범주화한 사회적 규칙 판단의 정당화 유형을 연구자가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들의 정당화 반응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의로 40명 (12%)의 자료를 선정하여 연구자와 아동학전공자 1명이 평정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89%의 일치도를 보였다.

3. 연구 절차

유치원 유아는 글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각문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자기 규제 여부와 그를 정당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전과정은 녹음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아동은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기 규제 여부와 그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표 2〉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

정당화 유형	정 의
도덕적 이유	
타인 배려	행동이 타인의 입장이나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공정성/의무	정의나 공정함을 추구하거나 인간 본연의 책임감에 따른다.
인습적 이유	
질서/예의/책임	사회 조직을 유지하는 것, 예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착한 아이	행위자가 착하거나 나쁘다.
처벌 회피	권위자의 명령,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받을 처벌을 피한다.
사회적 제재	사회, 또래의 규범에 반하는 행동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한다.
자기-이익 고려	
건강/안전	행위자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학업/지성	행위자의 지적 능력 또는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발달	행위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실용주의적 이유	실제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고려한다.
개인 욕구의 이유	행위자의 흥미나 욕구를 만족시킨다.
기타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응답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규칙 명시와 규칙 영역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 비율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정으로 수정된 Tukey검증*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규칙 명시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

아동이 자기 규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규칙 명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규칙 명시 여부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전체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는 어

머니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규칙이 명시된 경우에 더 높다. 그리고 연령과 규칙 명시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규칙 명시에 따른 자기 규제 정도의 차이가 연령집단별로 다르다. 즉 어머니의 규칙 명시가 아동의 자기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9세, 12세 아동보다

* 반복측정분석시 집단내 요인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수정된 Tukey검증에는 $|y_i - y_j| > q_{.05; k(n-1)(k-1)}$

$\sqrt{\frac{MS_{res}}{n}}$ 의 부등식(Stevens, 1996)이 사용되었다.

6세 유아에게 더 크다.

〈표 3〉 연령과 규칙 명시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의 분산분석

변 동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집단간				
연령	6.36	2	3.18	50.39***
오차	21.53	341	.06	
규칙 명시	1.15	1	1.15	93.25***
집단내				
연령×규칙 명시	.45	2	.22	18.22***
오차	4.19	341	.01	

***p < .001

2. 규칙 영역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명시된 경우 규칙 영역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 〈표 6〉과 같이 두 상황 모두에서 규칙 영역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두 상황 모두에서 연령과 규칙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세 연령 집단에서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령집단별로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의 차이를 수정된 Tukey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령 및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의 분산분석

변 동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집단간				
연령	25.47	2	12.73	65.19***
오차	66.61	341	.20	
규칙 명시	5.46	4	1.37	29.66***
집단내				
연령×규칙 명시	2.03	8	.25	5.51***
오차	62.84	1364	.05	

***p < .001

1)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령과 규칙 영역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연령과 규칙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세 연령집단에서 규칙 영역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듯이, 6세 유아의 자기 규제 비율은 놀이관련, 학업관련 규칙이 각각 도덕 규칙과 차이가 있고, 다른 규칙 영역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6세 유아의 자기 규제 정도는 놀이관련, 학업관련 행동보다 도덕적 행동에서 더 높았다. 9세 아동의 자기 규제 비율은 놀이관련, 학업관련 규칙이 각각 안전관련 규칙과 차이가 있고, 다른 규칙 영역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9세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는 놀이관련, 학업관련 행동보다 안전관련 행동에서 더 높았다. 이에 반해 12세 아동의 자기 규제 비율은 도덕, 인습, 안전관련 규칙과 학업관련 규칙간, 그리고 도덕, 인습, 안전관련 규칙과 놀이관련 규칙간의 자기 규제 비율 차이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학업, 놀이관련 규칙의 자기 규제 비율이 도덕, 인습, 안전관련 규칙보다 낮았다. 이는 12세 아동이 도덕, 인습, 안전관련 규칙과 학업관련, 놀이관련 규칙을 구분하여 자기 규제 정도를 달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가 규칙 영역에 따라 다르고, 이 자기 규제의 영역 구분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뚜렷해진다.

2)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된 경우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된 경우 연령과 규칙 영역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연령과 규칙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세 연령집단에서 규칙 영역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5〉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에 대한 수정된 Tukey검증 결과

연령	규칙 영역	N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된 경우			
			M	SD	Tukey	F값	M	SD	Tukey	F값
6세	도덕	51	.67	.37	a	7.53***	.73	.38	a	1.14
	인습	51	.54	.39	ab		.72	.37	a	
	안전	51	.54	.45	ab		.71	.38	a	
	놀이	51	.44	.43	b		.69	.39	a	
	학업	51	.41	.50	b		.65	.48	a	
9세	도덕	149	.89	.19	ab	6.75***	.91	.19	a	1.39
	인습	149	.89	.20	ab		.92	.18	a	
	안전	149	.94	.15	a		.92	.18	a	
	놀이	149	.86	.25	b		.92	.20	a	
	학업	149	.84	.27	b		.89	.21	a	
12세	도덕	144	.83	.22	a	23.82***	.88	.22	a	12.97
	인습	144	.86	.21	a		.91	.16	a	
	안전	144	.87	.21	a		.90	.18	a	
	놀이	144	.72	.31	b		.81	.27	b	
	학업	144	.66	.33	b		.78	.29	b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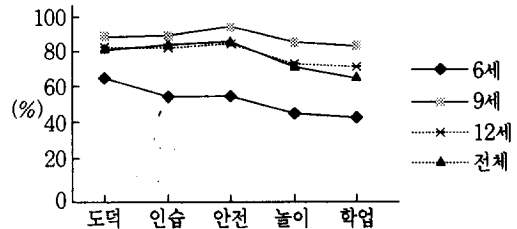
6세, 9세 아동의 자기 규제 비율은 규칙 영역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2세 아동의 자기 규제 비율은 규칙 영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도덕, 인습, 안전관련 행동을 각각 놀이관련, 학업관련 행동보다 더 규제한다고 판단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정한 규칙이 있을 경우, 6세와 9세 아동은 규칙 영역의 구분 없이 자기 규제의 정도를 비슷한 것과 달리, 12세 아동은 어머니가 정한 놀이, 학업관련 규칙을 도덕, 인습, 안전관련 규칙보다 덜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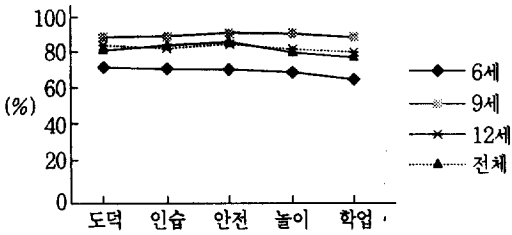
〈표 6〉 규칙이 명시된 경우 연령 및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의 분산분석

변 동 원	지승합	자유도	평균지승	F값
집단간 연령	8.58	2	4.29	23.60***
오차	61.98	341	.18	
규칙 명시	1.25	4	.31	9.43***
집단내 연령x규칙 명시	.77	8	.10	2.88***
오차	45.21	1364	.03	

p < .01, *p < .001



〈그림 1〉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



(그림 2) 규칙이 명시된 경우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

3. 규칙 영역별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

아동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을 규칙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듯이 각 규칙 영역 내에서 자주 사용된 정당화 유형이 다르다.

각 규칙 영역내에서 자주 사용된 정당화 유형을 살펴보면, 도덕 영역에서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은 인습적 이유(38%), 도덕적 이유(29%), 개인 욕구의 이유(1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아동은 주로 도덕적 이유와 인습적 이유에 근거하여 도덕 영역에서 자기 규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인습 영역에서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은 인습적 이유 비율(52%)이 절반으로 가장 높고, 도덕적 이유(15%)와 개인 욕구의 이유(1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은 주로 인습적 이유에 근거하여 인습 영역에서 자기 규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안전관련 영역에서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은 자기-이익 고려(68%)가 절반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은 개인 욕구의 이유(13%), 인습적 이유(10%) 순이었다. 즉 아동은 주로 자기-이익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영역에서 자기 규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놀이관련 영역에서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표 7> 연령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 비율

판단 이유	규칙영역과 연령																			
	도덕				인습				안전				놀이				학업			
	6세	9세	12세	평균	6세	9세	12세	평균	6세	9세	12세	평균	6세	9세	12세	평균	6세	9세	12세	평균
1. 도덕적 이유	.24 (.25)	.26 (.25)	.33 (.23)	.29 (.24)	.08 (.14)	.17 (.16)	.26 (.17)	.15 (.17)	.01 (.05)	.02 (.06)	.03 (.07)	.02 (.06)	.01 (.04)	.02 (.07)	.02 (.05)	.02 (.06)	.01 (.07)	.01 (.05)	.01 (.04)	.01 (.26)
2. 인습적 이유	.41 (.33)	.42 (.25)	.34 (.24)	.38 (.26)	.44 (.28)	.50 (.22)	.58 (.22)	.52 (.24)	.18 (.25)	.08 (.13)	.10 (.14)	.10 (.16)	.20 (.22)	.11 (.14)	.16 (.17)	.15 (.17)	.22 (.30)	.32 (.04)	.22 (.20)	.26 (.24)
3. 자기-이익	.02 (.07)	.12 (.16)	.07 (.14)	.08 (.14)	.02 (.07)	.07 (.11)	.04 (.08)	.05 (.10)	.40 (.39)	.78 (.22)	.69 (.26)	.68 (.29)	.26 (.31)	.55 (.21)	.39 (.27)	.44 (.27)	.26 (.37)	.26 (.20)	.31 (.25)	.28 (.25)
4. 실용주의	.01 (.05)	.06 (.11)	.06 (.10)	.05 (.10)	.07 (.12)	.16 (.16)	.10 (.14)	.12 (.15)	.02 (.07)	.05 (.11)	.05 (.10)	.05 (.10)	.09 (.14)	.19 (.17)	.16 (.16)	.16 (.16)	.02 (.10)	.26 (.21)	.16 (.17)	.18 (.20)
5. 개인 욕구	.30 (.34)	.09 (.16)	.14 (.18)	.14 (.22)	.38 (.34)	.09 (.16)	.10 (.16)	.14 (.22)	.39 (.38)	.06 (.13)	.11 (.16)	.13 (.23)	.43 (.38)	.10 (.19)	.23 (.26)	.21 (.28)	.47 (.42)	.14 (.21)	.28 (.29)	.24 (.30)
6. 기타	.03 (.08)	.05 (.10)	.06 (.12)	.05 (.11)	.02 (.05)	.02 (.06)	.02 (.06)	.02 (.06)	.01 (.05)	.01 (.04)	.03 (.10)	.02 (.07)	.01 (.05)	.02 (.07)	.05 (.12)	.03 (.09)	.02 (.14)	.02 (.06)	.02 (.07)	.02 (.08)

정당화 유형은 자기 이익 고려(4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개인 욕구의 이유(21%)이고, 실용주의적 이유(16%)와 인습적 이유(15%)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은 주로 자기-이익의 이유에 근거하여 놀이관련 영역에서 자기 규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학업관련 영역에서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정당화 유형 비율은 자기-이익 고려(28%), 인습적 이유(26%), 개인 욕구의 이유(24%), 실용주의적 이유(1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서, 아동은 다양한 이유에 근거하여 학업관련 영역에서 자기 규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아동의 자기 규제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정한 규칙 명시와 규칙 영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만 6세, 9세, 12세 아동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는 규칙의 명시성에 따라 다르다. 즉 모든 규칙 영역에서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명시된 경우에 아동은 더 자기 규제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는 일상 생활에서 어머니의 명백한 규칙 명시가 자기 규제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어하는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6세 유아의 자기 규제 정도가 규칙 명시에 따라 더 많이 변화한 결과는 자기 규제 정도가 낮은 6세 유아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주 명시적으로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는 규칙 영역에 따라 다르다. 어머니의 규칙 명시 유무의 두 상황에서 규칙 영역에 따른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 연령집단 모두에서 자기 규제 정도가 일부 규칙 영역간 차이가 있으나,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된 경우에는 6세, 9세 집단에서는 규칙 영역간

구분 없이 자기 규제 정도가 높아지는 반면 12세 집단에서는 규칙 영역간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 규제 정도가 높아진다. 즉 어머니가 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 6세, 9세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지만, 12세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는 놀이관련, 학업관련 영역보다 도덕, 인습, 안전관련 영역에서 더 높다. 이는 6세, 9세 아동은 어머니가 정한 모든 규칙을 동일하게 수용하지만, 12세 아동은 어머니가 정한 놀이관련, 학업관련 규칙을 도덕, 인습, 안전관련 규칙보다 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아동의 부모 권위에 대한 강한 순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규칙과 권위 순응성의 변화가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데 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발달적 요구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령 집단에 따라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비율의 차이가 다르다. 6세 유아의 경우 모든 규칙 영역에서 자기 규제 비율이 낮고, 도덕적 행동을 놀이관련, 학업관련 행동보다 더 규제한다고 판단했다. 9세 아동의 경우 모든 규칙 영역에서 자기 규제 비율이 6세, 12세 아동과 같거나 높고, 안전관련 행동을 놀이관련, 학업관련 행동

보다 더 규제한다고 판단했다. 12세 아동의 경우 도덕, 인습, 안전관련 영역의 자기 규제 비율은 9세 아동과 비슷하지만 놀이관련, 학업관련 영역의 자기 규제 비율은 9세 아동보다 낮다. 그리고 규칙 영역에 따른 자기 규제 정도의 구분이 더 많이 이루어져, 도덕, 인습, 안전관련 행동을 각각 놀이관련, 학업관련 행동보다 더 규제한다고 판단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 규제 정도가 영역에 따라 더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규제 정도가 연령에 따라 그리고 영역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Piaget의 인지발달이론과 Turiel의 영역 구분 모형이 부분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한다. 6세 유아는 전조작기에 머물러 규칙에 대한 이해가 정교화되지 못했고, 사회의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 영역을 덜 구분하고 모든 규칙 영역에서 자기 규제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12세 아동은 형식적 조작기이며 자율성의 시기에 속하므로, 규칙에 대한 이해가 정교화되지만 자율성을 표출하려 한다. 따라서 타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덕, 인습 영역과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련 영역에서는 9세 아동과 비슷한 자기 규제 정도를 나타내지만,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놀이관련, 학업관련 영역의 자기 규제 정도는 9세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두 규칙군간의 자기 규제 정도도 뚜렷이 구분되어, 도덕, 인습, 안전관련 행동을 각각 놀이관련, 학업관련 행동보다 더 자기 규제한다.

6세에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큰 것은 규칙 영역의 구분없이 개인 욕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아동기적인 이기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2세에 놀이관련, 학업관련 영역에서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사실은,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율성 표현을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충동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개인의 욕구 주장이 타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덕, 인습 영역에는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한 자율성의 표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아동은 자기 규제 여부를 주로 규칙의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했다. 즉 도덕, 인습 영역에서의 자기 규제 여부는 주로 도덕적, 인습적 이유에 근거하는데 반해, 안전, 놀이, 학업관련 영역에서의 자기 규제 여부는 주로 자기-이익과 실용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였다. 이는 아동이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규칙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여 자기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의 특성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추상적 규칙보다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사회적 규칙을 교육시키는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와 아동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모의 규칙 사회화 특성을 추후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아동의 자기 규제 정도와 그 이유가 연령과 규칙 명시 및 규칙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는 아동의 자기 규제가 직선적이고 단일 차원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성 발달에 대한 영역구분 접근(Turiel, 1983)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아동의 규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적 요구와 상황에 대한 아동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자기 규제 능력의 발달에서 아동이 갖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아동의 자기 규제 여부와 그 이유를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회적 규칙 특성 및 규칙 명시라는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서울: 한국개발조사연구소.
- Davidson, P., Turiel, E., & Black, A. (1983). The effect of stimulus familiarity on the use of criteria and justifications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9-65.
- Gra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da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573-584.
- Nucci, L. P. (1995). Morality, autonomy, and social conflict. In M. Killen & D. Hart (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pp. 52-86).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llow, M., & Girnius, B. O.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6), 799-806.
- Nucci, L. (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ncept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f soci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1), 114-121.
- _____, Camino, C., & Sapiro, C. M. (1996). Social class effects on eastern Brazilian children's conceptions of areas of personal choice and social regulation. *Child Development*, 67(3), 1223-1242.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The growth of moral motivation. In G. G. Noam & T. Wren (eds.). *The moral self: Building a better paradigm* (pp.269-291). Cambridge, MA: MIT Press.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Y.: Free Press.
- Shaffer, D. R.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ers.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35-403.
- Smetana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5), 1052-1067.
- _____, & Asquith, P. (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adolescent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4), 1147-1162.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